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11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12**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13** 그러나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14**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15**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16** 예레미야가 토굴 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 경호대 뜰에 머물게 된 예레미야

17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18**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19** 왕께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20** 내 주 왕이여, 그러니 이제 부디 들으시고 제 간청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21**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있게 하고 성읍 안에 빵이 다 없어지기까지 빵 굽는 사람의 거리에서 날마다 빵 한 덩이씩 그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예레미야는 고향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아 매를 맞고 토굴 속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비밀리에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신경이 쓰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돌려보내지 않고 경호대 뜰에 있게 합니다.

1. 베냐민 땅으로 가던 예레미야는 어떤 오해를 받았나요? (13-14절)

그곳의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나요? (15-16절)

2.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 비밀리에 물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17절)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현실과 어떻게 달랐나요? (19절)

• 닦아가기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거침없이 전한 예레미야처럼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상황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전해야 할 말이나 믿음의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1 맛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셸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던 말을 들었다. 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3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4 그러자 관료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 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5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경호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함

7 그때 왕궁의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을 때 8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말했다. 9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성읍 안에 더 이상 빵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10 그러자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 올려 내려라." 11 그러자 에벳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 아래 있는 방으로 가 그곳에서 천 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꺼내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 주었다. 12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 천 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거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아래 두르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 13 그러자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 올려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 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3 묵상하기

믿음이 사라진 세대 속에서 말씀대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소신을 지키다 보면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세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배고픈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또 한 사람인 에벳멜렉을 통해 그를 구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 대세가 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대세를 따르기보다 나의 신앙과 믿음의 소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두렵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이, 나를 둘러싼 시선들이, 처한 상황이 나의 마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믿음으로 한 선택이고 행동인데도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그런 일들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 ②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할 때, 홀로 살리자고 했던 에벳멜렉처럼 나도 진리가 아닌 것에 담대하고 지혜롭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가 처한 상황, 제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다시 묻는 시드기야 왕 14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 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라." 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께 조언을 해도 왕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16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네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17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네 가족이 살 것이다.' 18 그러나 네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20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21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 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22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네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23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 비밀로 부치라는 시드기야 왕 24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25 만약 관료들이 내가 너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네게 와서 말할 것이다. '네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네게 무엇을 말했느냐?' 26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왕에게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게 될 테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27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왕이 명령한 말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었다.

3 묵상하기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예레미야가 어두운 감옥에 갇힌 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연했던 반면, 백성과 바벨론을 두려워한 시드기야 왕은 모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안해 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할 중대한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비밀에 부쳐 달라던 시드기야 왕의 애처로운 선택이 오늘 나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해야 하고, 결단했다면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묻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애써 외면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요? 내 안의 시드기야 왕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대대적인 결단과 실행이 오늘 내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내려놓을 내 뜻은 무엇인가요?
- ②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쉬쉬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 나의 태도를 어떻게 고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주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루살렘의 멸망

1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2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 3 그 후에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이 와서 '중간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사레셀, 삼갈르보, 내시의 우두머리 살스김,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셀 그리고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관료들이었다. 4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는 도망갔다.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길로 해서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을 떠나 아라바로 도망갔다. 5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갔고 여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기야를 판결했다. 6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였다. 7 그는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8 갈대아 사람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로 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붕괴시켰다. 9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읍 안에 남아 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 남아 있던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10 그러나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밭을 주었다.

· 백성 가운데서 살게 된 예레미야

11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관해 명령을 내렸다. 12 "그를 데려다가 돌봐 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13 그리하여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과 내시의 우두머리 느부사스반과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은 사람을 보내 14 경호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살았다.

· 에벳멜렉에게 주신 약속

15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16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그것들이 네 앞에서 이뤄질 것이다. 17 여호와와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에 너를 구해 낼 것이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 낼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고 네 목숨이 네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3 묵상하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경고하고 예고하신 심판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을 봅니다. 한 편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사람들이고, 한 편은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했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사람들은 예언대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반면,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를 구해준 에벳멜렉(38:7-13)은 모두가 고통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멸망과 죽음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평안과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성경 속 말씀들은 그저 과거에 있던 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게도 적용되는 약속들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도 휘둘리지도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녀에게, 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순종,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나는 믿나요? 오늘 내가 믿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 ② 마지막 때에 심판과 멸망이 아닌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나의 믿음과 일상과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보이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침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예레미야가 풀려남**

1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 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 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2 경호 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고 3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4 그러나 이제 보아라. 오늘 네 손에 묶여 있는 사슬로부터 내가 너를 풀어 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봐 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마라. 보아라. 온 땅이 네 앞에 놓여 있다. 어디든지 네 생각에 좋고 적당한 곳으로 가라."

· 남은 백성에게 돌아감

5 그러나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 그와 함께 네 백성 사이에서 살아라. 아니면 어디든 네 생각에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경호 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를 가게 했다. 6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이 땅에 남아 있던 백성 사이에서 함께 살았다.

3 묵상하기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됐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들 사이에서 예레미야를 발견한 경호 대장은 왕의 명령으로 그를 풀어주며 갈 곳을 선택 하라고 말합니다. 선택지는 바벨론, 어디든 원하는 곳, 유다 세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위로받고 초강대국 바벨론이 보장해주는 안정된 삶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안정도 보상도 아닌 폐허가 된 유다 땅이었고 (6절),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던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 다시금 회복을 외치려 했던 것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안정,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한 예레미야의 이 선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모든 크리스천의 선택 기준이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편안하고 달콤한 길이 있어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고된 길을 선택한 예레미야처럼,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고되지만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예레미야처럼 오늘 내가 기꺼이 해야 할 고되지만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위한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② 오늘 마주할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그다랴가 새 총독으로 임명됨

7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남녀와 어린 아이들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판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들었다. 8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예배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부하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왔다. 9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10 나 또한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대표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너희의 그릇에 보관하고 너희가 취한 너희 성읍들에서 살라." 11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들을 남겨 두었다는 것과 그들의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임명했다는 것을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었다. 12 자기들이 쫓겨나 있던 모든 곳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열매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

· 암살 음모를 믿지 않음

13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판에 있던 그들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와서 14 그에게 말했다. "암몬 족속의 왕인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5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 주시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여든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시 풀어지게 하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16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스마엘에 대해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3 묵상하기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다 땅이 그다랴의 리더십으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섬기고,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모인 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을 일구며 유다는 안정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하나님께서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 두 번이나 죽음을 피하도록 알려주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14-16절)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41:2). 믿어야 할 사람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은 그의 완고한 마음이 진실을 들을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큰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잘 해나가다가도, 예상치 못한 일에 자기 생각과 편견이 앞서 경솔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서 내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도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때때로 '그 사람은 내 편이야', '이게 있어서 든든해', '설마 그러겠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나에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일함과 무감각함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정돈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②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 시간이 내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영적 공격에 대비하는 시간이 되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늘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대처하게 하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스마엘이 그다라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임** 1 일곱째 달에 왕족이며 왕의 장관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열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2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열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라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3 이스마엘은 또한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다. 4 그다라가 살해된 이튿날에도 아무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 5 그때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곡식제물과 유향을 갖고 세겔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에 드리려고 했다. 6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며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가라." 7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는 웅덩이 속에 던졌다. 8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열 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에 숨겨 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9 이스마엘이 그다라 때문에 죽인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던져 놓은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해서 만든 것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 10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왕의 딸들이며 모두 미스바에 남아 있던 백성으로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 **이스마엘의 반란이 진정됨** 11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들었다. 12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에서 그를 만났다. 13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모든 백성은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서 기뻐했다. 14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 온 모든 백성은 돌이켜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15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여덟 명의 사람들은 요하난에게서 도망쳐서 암몬 족속에게로 갔다.

• **이집트로 떠난 사람들** 16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간 백성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왔다. 17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헬 근처 게롯김함에 머물렀다. 18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다.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악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